

# 백양사 대웅전 삼존불 봉안

## “신라-삼세, 백제-아름다움, 고려-당당함 표현”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 대웅전에 새로운 부처님이 오셨다. 4월 20일, 사부대중 1000여명이 석가모니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좌우보처로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이날은 백양사 대웅전이 모여 불, 보살과 제대조사에게 햇 차를 공양하는 곡우날이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과 대홍사 조실 천운 스님이 증명법사가 되어 삼존불을 집안하고 다례의식을 가졌다.

이어 열린 삼존불 봉안불사 회향법회에서 주지 두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부처님 조성으로 총림위상과 가풍을 일신하고 불자는 물론 만인의 귀의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불 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불, 보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면목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지난밤 곡우비에 세속의 때가 씻기듯이 부처님 봉안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 본래자성을 찾자”고 설했다.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도 발원문에서 “영원한 중생의 복권이 될 삼존불 봉안으로 사회대중에 화복하며,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백양사 대웅전에 봉안된 본존불은 금,



4월20일 봉행된 백양사 삼존불 봉안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은을 합친한 청동불로 높이 6자(180cm), 폭 4자(120cm) 크기이며 협시보살은 높이 5자(150cm) 크기이다. 삼존불에는 사리, 경전 등 전통양식의 복장물과 이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 물품으로 복장하여 후대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도록 했다.

또한 백양사는 삼존불 봉안과 함께 수미단, 담집, 탁자 등을 법당과 불상 크기에 맞춰 새롭게 조성했다. 삼존불을 조성한 불모 이진형(무형문화

재 6호)씨는 “석가모니불은 신라불상의 섬세함과 백제불상의 아름다움, 고려불상의 당당함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으며, 협시불은 백제보살상의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양사는 1982년 조성한 대웅전 철물이 법당 규모에 비해 너무 크고 부식으로 예경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5년 6월부터 삼존불 불사를 시작해 이날 회향했다.

글·사진/백양사·이준엽 기자



## 불 밝힌 ‘빛고을 아기부처님’ 광주시암련, 28일 연등축제

광주불교 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지난 4월 15일 옛 도청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광주전남 불족위원장 문산 스님(대홍사 주지)을 비롯한 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등 지역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 청주엔 ‘코끼리 탄 부처님’

청주청원 지역 부처님오신날 불족위원회(위원장 각의)는 불기2550년 봉축점등식을 4월 13일 청주 사직동 조형물공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지역 스님과 불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불을 밝힌 이 지역 봉축점은 구름 위에 아기코끼리를 탄 동자의 모습으로 구성됐다.

혜림 대전 총부지사장

## 감성 울리는 꽃과 신록의 향연

### 마곡사 4월 29~30일 축제 ‘꽃이여 바람이여’

꽃과 신록,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제3회 마곡사 신록축제’가 4월 29~30일 양일간 충남 공주 마곡사 및 입구사가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다.

‘꽃이여 바람이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산사음악회외에 경기명상,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그림 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4월 2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초청법회로 시작되는 신록축제는 심신·도신 스님과 방실이, 부부듀엣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로 고즈넉한 산사의

밤을 수놓게 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하유스님과 임원식, 이영빈씨가 출연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30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민속놀이 한마당과 경로잔치를 연다. 또 오후에는 마가 포교국장 스님의 지도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태화산 경기명상 등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동안에는 경찰병원의 의료봉사사와 함께 희망의 솜대만들기, 먹그림 교실, 즉석 디카 촬영대회, 페이스 페인팅 그려주기 등 이색 이벤트도 마련된다. (041)841-6221 김주일 기자



강진 무위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블을 자르고 있다.

## 불교벽화 전문박물관 문열어

### 강진 무위사, 불보살 벽화 29점 전시

강진 무위사(주지 종범)는 지난 4월 15일 국내 유일의 벽화전문 성보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대홍사 주지 문산 스님 등 사암 스님과 영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등 지역기관장, 주민,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주지 종범 스님은 인사말에서 “30년전 해체된 벽화를 보존각에 보관했으나 낡고 협소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첨단시설을 갖춘 벽화전문 박물관을 마련해 성보를 보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벽화 성보박물관은 연건평 218평, 2층(지하 1층 수장고, 지상 1층 벽화전시실) 구조로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착공 4년만에 준공됐다.

박물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목조기와 구조로 외형은 산이 겹쳐진 모양을 본떠 형상화했다. 벽화 성보박물관에는 1974년 극락보전 보수 과정에서 나온 아미타불후불벽화(보물 제1313호), 아미타래요도(보물 제1315호), 석가여래설법도, 해수관음좌상도 등 불보살 벽화 29점과 상량보 1점이 전시되고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 천천마한클럽 장학금 전달

청소년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천천마한클럽(대표 해산)은 4월 15일 익산 용화사 큰법당에서 ‘2006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중고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올해로 5회째 맞는 이날 천천마한클럽 장학금 수여식에서 해산 스님은 “학창시절 힘든 생활도 공부이다”며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뜻이 살아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천천마한클럽은 한달에 1000원을 후원하는 1000명의 모인으로 매년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선행학생들에게 월 5만원씩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 광주불방, 개국 11주년 축하공연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1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0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했다(사진).

공연에 앞서 이상진 사장은 인사말에서 “불교계는 물론 서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4·19 민주영령추모 영산제

4·19혁명 희생자 영령추모 영산제가 지난 4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와 4·19 문화원이 마련한 이번 영산제에서 대홍사

조실 천운 스님은 추모 법어를 통해 “민주혁명 열사가 정토세계에 나기위해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도 추모사에서 “4·19는 시민들이 부패한 정권을 물러나게한 민족 최초의 시민혁명이다”며 “민주주의를 지킨 영령들을 추모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영산보존회(회장 혜령 스님)가 민주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자법을 시연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 간화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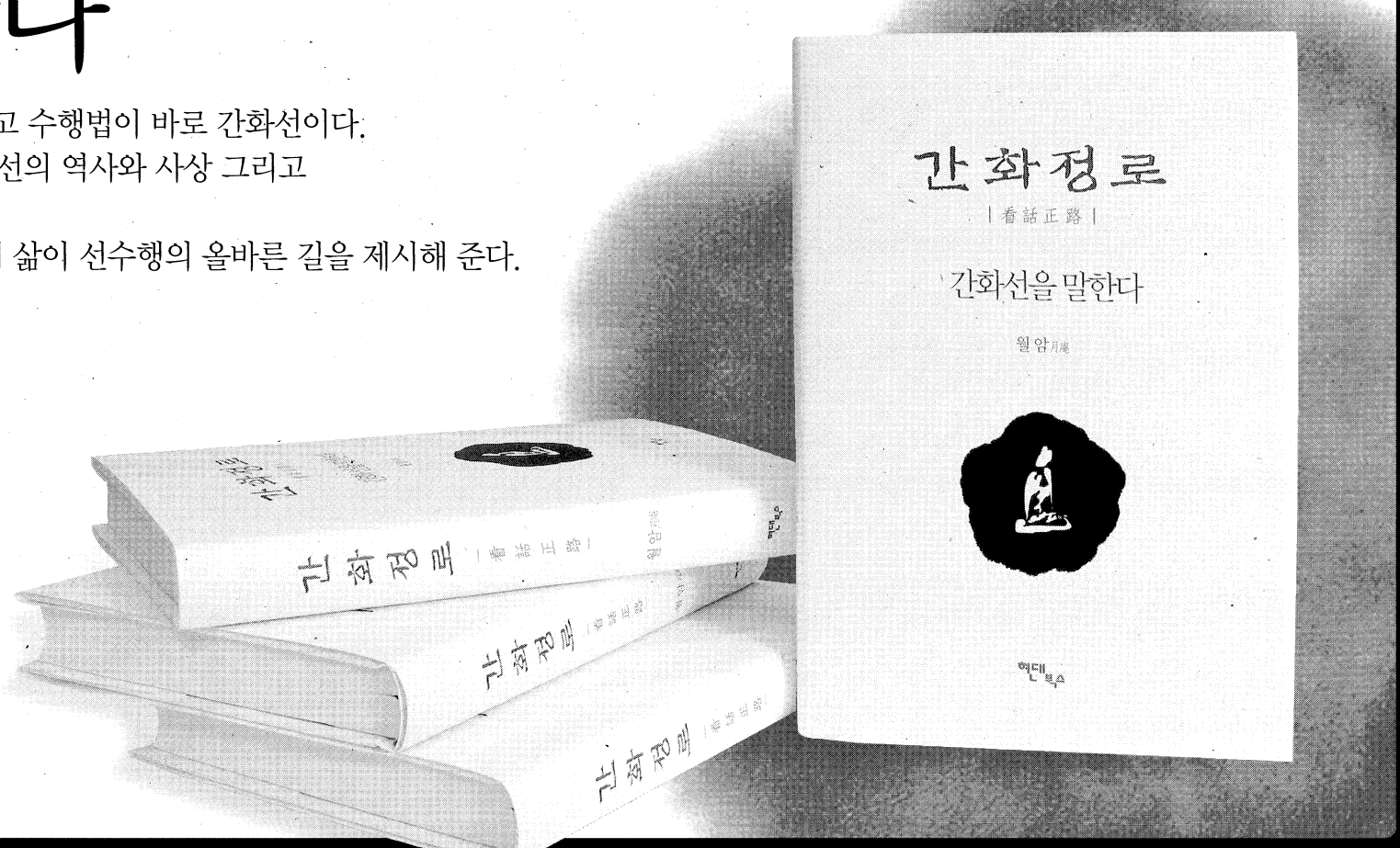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 看話正路 간화정로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 월암月庵

- 도문화상을 은사로 증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도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진언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찰을 맡고
-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현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현대 불교 (02)2198-5151 (05) 244-1251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